

◆며느리권씨 일전 13-1

고종황제 5대조 의안군 이혁(李赫)

군부인郡夫人 안동 권씨 (추밀공파 26세, 덕광공계, 權德光의 장녀)



'이 자리는 2대 황제가 나을 자리요.' 예산 덕산리에 있는 고종의 조부 남연군의 묘자리를 말한다. 80년 초 엄혹한 시절 떠돌이로 찾았던 그 자리, 당시엔 절박한 처지라 그자 그런 생각이었고 다만 마침 들고간 소주 반잔을 고시래 삼아 뿌려준 기억은 있다. 근래 '명당'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겹쳐져서 감회가 새롭다.

여기서 정만인(鄭萬人) 지관이 '2대 황제(대한제국 광무, 융희)', '속발속진처(速發速盡處, 복이 빨리 되었다가 빨리 없어지는 곳)'이니 '만대영화지지(萬代榮華之地)로 가자!'라고 말하는 바 대원군 이하응(李星應, 1820-1898)은 당장 발복지에 마음이 끊히고 만다.

면서기 자리도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 나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 이하응의 아들 이재황(개똥이, 이희)이 '문현무장인의정효태황제(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로 변신하기에는 엄청난 확률의 변수가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논두렁 정기'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하응 또한 그 힘쓴 것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그것이 주는 길흉화복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국회의원 후보가 논두렁을 찾아가서 농부들의 인심을 부지런히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종(高宗)'은 그 10대조가 능양군(인조)일 뿐이다. 그와 같은 입장의 왕족은 아마 일천명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이 능양군(인조)은 선조의 적자가 아닌 정원군(추존 원종)의 아들이다. 원종은 광해군이 왕이 시절 매일 생사의 갈림길에서 불안에 떨다가 인조반정 몇 년 전 취생동사했다. 그가 안장된 곳이 최근 개방되고 아파트 건립으로 말썽이 된 김포 장릉(章陵)이다.

그리고 이 인조의 조부인 선조왕도 이름 없는 왕족(하성군)으로 아버지가 덕흥군(이조, 덕흥대원군)이다. 그러니 수양대군 왕위 친탈 이후 정의가 사라지고 오로지 당파의 이익을 위한 바지사장(왕) 세우기로 일관하고 있었으니 임진왜란·병자호란으로 백성을 어吁화하고 오로지 뛰어 먹는 데만 열중한 조선왕조였다. 후대에 정약용의 애질양(哀絕陽) 시에 절절히 나타난다.

여기서 덕흥군의 어머니가 바로 유명한 창빈 안씨(안산 안씨, 1499-1549, 安坦大의 妃)이다. 그녀의 희출이 조선 왕조를 깨뚫고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현충원)에 네명의 대통령을 거느리고(?) 누워 있다. 그녀와 그 아버지 안탄대(현재의 육군 대위급)의 천신과 성품은 대단하다고 본다.

즉 왜 이리 서문이 길었나 하면, 이 고종의 6대조 할머니가 바로 (추밀공파 26세, 덕광공계, 權德光의 장녀) 郡夫人(왕자의 처) 안동 권씨이기 때문이다.

高宗의 실제 가계도

원종(1580-1620, 인조의 부친 추존/김포 장릉/母 인빈김씨(선조후궁)-인조 (1545-1695, 능양군 증조부 / 양조부는 인조의 동생 능창군)-인평대군 조부 (형 소현세자/효종)-복창군(양부)/복녕군(생부 1639-1760)-의원군 이혁(1661-1722 62살, 부인 권덕광 1627-1704 77살, 郡夫人 안동권씨 1644-1722 78살)-안행군 이숙(자 1693-1768, 75살, 생모 權德廣녀)-이진의 (1728-1796, 68살, 손자)-이병

<전체 대원군과 흥선대원군 가계도>



고종의 공식적인 가계도를 보면 실제 사도세자와 일어도 한참 먼 관계로 인조 이후 숙종, 영조, 사도세자이니 고종의 조부 남연군은 인조의 아들 인평대군 5대손이니 온연군의 양자가 되면서 주류에 들어간다. 그래도 왕 자리와는 한참 멀다.

권태성 대표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수상

권태성(權泰成) 영우산업기계 대표가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서 가스안전공사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권태성 대표는 23세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설비제조업에서만 2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다.

권태성 대표의 영우산업기계가 제작하고 있는 제품은 업무용 대형 연소기이다. 이 기계는 계란말이, 계란지단과 같은 제품을 조리하는 데 주로 쓰인다. "저희 제품은 저희가 직접 1년간 개발한 기술로 특허도 있습니다. 특히 명칭은 '계란 지단 제조장치'로 2015년에 출원해 2017년 4월 23일 정식 등록되었

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길이 3m에서 12m까지 다양한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기계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권태성 대표는 표면 연소버너도 개발했다. "처음에 연소기애 버너를 쓰려고 하니,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라 수리나 조건에서 변수가 너무 많아져, 전구처럼 만들어 멀티로 쓰고자 직접 개발한 것"이라고 한다. 권태성 대표는 25년간 가스기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며, 제품의 국산화에 노력해 왔다. 이 점이 높이 평가되어 올해 가스안전대상을 수상했다.



<명인 명소>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은 한국 천주교 성지 1번지이다. 충남 금산군 진산은 권상연(야고보)과 윤지총(바오로)이 정조 15년(1791년) 제사문제로 진산사건(신해박해)이 일어난 곳이다.

진산은 한국 최초로 순교했던 권상연과 윤지총이 나고 자란 곳으로 윤지총과 권상연은 고종 사촌 간이다. 윤지총의 어머니가 권상연의 고모 권조이이다. 순교 이후 교우촌이 형성되면서 지역 천주교의 중심지 역할을 한 종교적 역사성과 영성이 깃든 장소이다. 이 성당은 1927년 프랑스 선교사 박 파르트네 신부가 지은 직사각형 모양에 맞배지붕을 한 소규모 목조 건축물이다. 한국 천주교 유산으로서 건축적 가치가 높아 평가되어 2017년 5월 29일 등록문화재 제682호로 등록되었다.

야고보 권상연(權尚然, 1751~1791)의 묘지는 2021년 3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이성지 바우베기를 성역화하는 하는 과정에서 백사사발 지석(誌石)이 발견되어 밝혀졌다.

권상연과 윤지총은 2014년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천주교회가 공경할 만한 복된 자로 선포하는 일)로 추서되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경석 전 추밀공파종회 회장 한시집 '금수강산 영가' 출간

죽현(竹軒) 권경석(權景晳) 전 추밀공파종회 회장이 한시집(漢詩集) <금수강산錦繡江山 영가詠歌>를 출간했다. 저자는 자서(自序)에서 "수리를 전공하고 병영에서 반생 진력한 소생이 한시에 몰입하게 된 동기는 정종(으뜸)으로 제현(諸賢)의 격찬을 받아오신 석주공(石洲公)의 14세손으로 무지함을 통감하던 차 노년이 되어 동봉(東峰) 권홍섭(權洪燮)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물론 시중공파 권돈인(權敦仁)이 추천한 이하전(李夏銓, 1842-1862, 死刑)이 왕좌에 올랐다면 권문도 같은 세도의 길을 갔을까 하는 것은 또 따져봐야 하고 권돈인이 노론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무색공정하니 또 모를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난해하여 갑고를 잡지 못하였으나 여리 해 매진하면서 한문학의 심오함을 재삼 깨닫게 되고 한국한시협회에 입문하고 보니 수많은 이들이 예지를 뽐내고 있어 합부로 시학도라 말하기 면구스럽다"고 겸손해한다.

죽현의 은사이신 등봉 선생은 책의 변언(弁言)에서 "죽현은 전통시예가문(傳統詩禮家門)에서 대를 이어온 유전성이 있어서 작시(作詩) 공부를 시작한 지 단기간 내에 문리가 통하고 진취성이 엿보여 대견스 "리위 한다. 아울러 "마지 않아 율려(律呂)가 독특한 시(詩)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 한다.

석주공의 학덕을 물려받은 죽현은 <금수강산錦繡江山 영가詠歌> 1부에서는 춘하추동의 사계를 한 시로 읊고 2부에서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에 대해 일일이 밸롭을 팔아가며 찾은 현장의 느낌을 한시로 표현하려 한 듯 하다. 3부에서는 유우자적이라는 소재목에 효우孝友, 한거閑居, 우국화란 豊國禍亂, 송구영신送舊迎新으로 세부 목차를 잡았다.

효우편에서는 시조 대사공에 대한 권도와 득성 유래에 대해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생각하며 남한산성을 회억하기도 하며,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다음은 죽현의 시세계에 들어가 보자.

權太師公 <권태사공> 陽韻

古昌奮起佐龍王①

안동이 분기하여 려조를 도왔으나

大捷瓶山大振揚

병산대첩에서 크게 멀쳐 드날렸도다

炳道達權陽性①

밝은 도가 권도에 달한다고 권씨로 사성하고

三韓壁上太師襄

한벽상공신 태사에 오르셨네

聽雁 <기러기 소리를 듣고> 支韻

黃波大地晚秋時 만추 계절에 대지는 황금물결

遠聞唧唧雁影怡

멀리서 기러기 용옹 반가이 들린다

北域蒼空來隊列 북녘 창공에 대열적 내려오고

南村湖畔作鮮漪

남촌 호반에 아름다운 물결 일렁인다

丹楓到處丹丹染

도처에 단풍은 붉게 물들고

碧竹無時碧碧摘

푸른 대는 때도 없이 푸르게 펼쳐진다



好節農心性格

좋은 계절 농군의 마음은 넉넉하고

豊年滿喫自嬉嬉 풍년을 만끽하며 희희락락하네

讀石洲公杜詩感懷 <석주공두시읽고감회에 젖어> 支韻

神瓢一讀少陵詩③

두보의 시는 한번 읽으면 신풍이 일고

稀代名儒向日熙

희대의 명유로서 해를 향해 빛나네

西浦許筠王益後

김만중 허균은 왕유 맹호연도 석주 뒤라 하였고

月沙谿谷律調譯

이정경 장유 율려가 조화되어 아름답다 하였다

麗朝菊老封君最

고려조 국재공가는 봉군이 최다이고

近世石洲文筆廊

조선조 석주공은 문필이 성대하였다

地域儒林碑建立

고양시 유림이 시비를 건립하였으나

吾門慶事守矜持

우리 문종의 경사로서 긍지를 지키리라

雲巖書院懷古 <운암서원을 회고하며> 先韻

無等雲巖廟宇全

무등산자락 운암사는 묘우로 온전하니

仲秋享祀禮諸賢①

팔월 향사에 제현들이 참례하는군요

汝章旅路湖南數①

여장께서는 호남 여행을 자주 하셨는데

土役戎場義將宣①

해광께서는 의병장으로 전장을 누비셨네

韓祖詩朋吟詠作

석주공께선 시우들과 시를 지어 읊으며

洪州宋氏女姻緣

홍주 송씨의 여식과 혼인연을 맺었도다

河西地域儒宗振①

하서공은 지역 유림의 유품으로 떨치시고

當代文壇石老先 당대 문단에 석주공이 수위였네

권행완 편집국장